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17, 원죄, 표절 및 아르미니우스 주의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의 교리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원죄, 표절주의 및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우리는 원죄와 함께 죄의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연구할 때 도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선한 세상을 창조하신 선한 신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이 세상에 침투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압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죄의 기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5:12~21은 죄에 대한 고전적인 본문으로 정당하게 여겨진다. 그러므로 죄가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듯이, 바울이 if 절을 제시하고 그 뒤에 then 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는 비교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의 생각은 아담의 죄가 어떻게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는지,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13절에서, 죄는 실제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를 보았는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구성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죄는 율법 안에, 세상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세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죄가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명백하고, 뚜렷하고,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에서 모세까지 죽음이 통치했고,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통치했습니다. 아담의 죄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금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금지 사항입니다. 에덴에서 시나이까지, 시나이 이후까지 이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 제 말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덟 가지 있고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요.

하지만 13과 14 사이에, 13으로 시작하는 단어 때문에 12를 더 설명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그 사이의 사람들이 아담이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명령, 금지. 당신은 그 기간에 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담의 죄에 돌리는 것은 실제로 죄의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샅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의 지배, 죄와 죽음의 통치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14장 끝에서 아담이 오실 자의 예표였다는 것을 읽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12절의 미완성 조건절을 마무리하는 열쇠이며, 그는 18절과 19절에서야 마무리합니다. 그가 아담과 그리스도가 비슷하다고 말하자마자, 아담은 그리스도의 구약성경적 예표입니다.

그는 즉시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느꼈고, 예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 구절인 15, 16, 17절은 그들이 어떻게 비슷한지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러나 의와 영생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물론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았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6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와 그들의 결과가 같지 않음을 다시 보여줍니다. 은사는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번 범한 범죄에 대한 심판은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범죄에 대한 은사는 아담의 한 가지 죄로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왔고,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많은 죄와 구별합니다. 이 평행법은 한 가지 죄와 많은 죄가 절에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한 가지와 많은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범죄에 따른 은사는 의롭다 함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통치하였으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은혜와 의의 은사의 풍성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아담과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제정한 통치에서. 아담은 죄의 통치를 가져왔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은 통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 실례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의 통치를 가져왔지만, 생명이 통치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통치합니다. 이 구절은 또 다른 이유로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처음 17장의 두 번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객관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구절 전체가 두 아담과 그들의 행위와 그로부터 오는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관성에 대해 말하는 유일한 시간인데,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풍성함, 곧 의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의 흐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비교를 시작하지만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13절과 14절은 아담의 죄가 다른 사람들, 즉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합니다.

14절의 끝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2절의 미완성 비교절을 마무리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에 즉시 집중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15, 16, 17에서 그는 그것들이 서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18에서 그는 12의 논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비교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온 것처럼, 한 번의 의로운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칭의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19절은 이 생각을 다양한 어휘와 이미지로 반복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12절에서 미완성된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한 번의 범죄로 인류의 정죄가 초래되었습니다. 한 번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하는 행위로 정당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원장은 불균형합니다.

그가 칭의라고만 말했다면, 그것은 정죄와 균형을 이루었을 것이지만, 그는 칭의와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을 말함으로써 그것을 이런 식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두 번 말한다는 사실은 문제이며, 우리는 곧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서 많은 사람을 두 번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즉 아담이 동산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순종으로, 빌립보서 2장,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18절의 모든 것, 많은 것, 많은 것, 19절의 많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중 어느 것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라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케이크를 가지고 먹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저거 봐"라고 말한다면.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18장과 19장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학에 아름답게 들어맞고, 바울은 그것을 모순하지 않지만, 그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읽는다면, 보편주의자들이 18절을 어떻게 읽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증거 본문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거야. 그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말하는 사람을 나는 몰라.

19년에 아담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오염되지 않은 인간도 있다는 말인가요? 어머니. 그럼,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두 구절의 공간에서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할 때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많은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것을 말할 때, 그는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과 대조되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것은 한 사람, 아담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1초는 아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백성입니다. 아담과 그의 백성을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들입니다.

즉, 두 아담을 비교하고 아름다운 단어와 아름다운 산문으로 그들의 단 한 번의 행동의 재앙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브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원죄는 이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의로운 한 가지 행위, 그의 순종의 한 가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모든 주석가들은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을 말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물론, 그의 부활은 구원하며, 그것은 암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말의 초점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보통 칭의를 현재로 생각하고, 실제로 현재이지만, 가장 기술적이고 적절한 의미에서, 구원의 다른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마지막 날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와 같은 패턴에 맞는 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더그 무어의 주석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의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고, 당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정당화, 무죄, 무죄,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마지막 날, 정죄, 정당화는 미래의 정당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정당화되었는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16, 17, 18에서 보여 주듯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마다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

마지막 날의 판결은 복음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판결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19절까지 요약한 내용이 너무 짧습니다.

20,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때때로 바울은 율법을 죄의 선동자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죄가 증가한 곳에서 은혜는 더욱 넘쳤습니다.

죄와 은혜, 그리고 그들의 증가를 대조하여 죄가 죽음 안에서 군림하였듯이, 은혜도 의로움을 통해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이 다시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이 차트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요약하고 싶었고, 여러분은 매우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로마서 5:12에서 21까지의 아담 그리스도 대조를 비교합니다.

가장 왼쪽에 두 아담이 있고, 위의 제목은 그들의 행위, 각자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과 그들의 개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행위에 대해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것을 죄, 범법, 또는 범법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은 그럴 듯합니다. 번역은 다양하지만, 그들은 동의어입니다. 죄, 범법 행위, 그리고 불순종.

저는 죄를 요약으로만 사용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고, 이브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머리고, 그녀는 머리가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것은 원죄입니다. 첫 번째 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브의 죄를 간과하고, 나머지 모든 인류를 죄짓게 하는 죄, 예수는 동정녀 잉태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나고, 결과적으로 죄를 지으며, 존 마호니의 에세이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묘사한 모든 방식으로 죄가 설명되었습니다. 죄의 혼란, 얽힘, 사악함은 첫 번째 인간에게서 비롯됩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정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일까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결은 하나뿐입니다. 유죄, 정죄, 저주, 정죄는 좋은 신학 단어입니다.

다른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신이 다른 방향을 보거나, 글썄, 소년은 소년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신은 자신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구절에서 일관되게, 죽음입니다. 물리적인 성경은 또한 영적 죽음을 포함할 것입니다: 죽음과 그것의 다양한 파생물.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입니다. 신학자들은 두 번째 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사상을 말합니다. 그는 단지 옳게 된 두 번째 인간일 뿐이며, 그는 그의 백성의 종족, 구원받은 종족의 머리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자연스러운 수장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가 원죄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류의 수장이 되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강의와 아마도 다음 강의에서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담의 죄, 불순종, 범법에 상응하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라고 부른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한 의의 한 행위, 19절: 의와 순종.

여기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실제로 칭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순종,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에서의 의로운 행위에 비추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저는 경건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개혁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더러운 죄인, 살인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자신을 부인하고 아들의 일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정죄해야 할 때조차도, 저는 경건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의 일을 존중하는데, 그는 그것을 계획하고 세상에 보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빼놓고 싶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다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에게 의롭다고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물론 영생입니다.

그 작은 차트는 원죄 교리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원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 전에, 저는 훌륭하고 경건한 복음주의 성공회 제럴드 브레이의 도움을 받아 약간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제 특권입니다. 얼마나 신의 사람인가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독신남.

글쎄, 그는 또한 천재이고,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의 책을 셀 수가 없어요. 오, 맙소사.

그는 역사 신학에서 죄에 대한 장에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멋진 책인 *Fallen, A Theology of Sin*에서요. 저는 크리스토퍼 모건과 함께 책을 공동 편집했기 때문에 농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질서 속의 죄. 따라서 초기 교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3장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는 인류의 창조, 타락, 죄, 타락에 대한 기록이다.

사실상 모든 교부들은 이 기초적인 텍스트에 대해 길게 썼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두 번 이상 그렇게 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에 대한 많은 주석을 쓰지 않았다.

시편과 요한의 산상 설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한 논문이 무려 네 개나 쓰여졌습니다.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마니교에 반대하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그가 속해 있던 이전의 종교 철학 컬트,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에 대한 미완성 주석, 그의 고백록의 마지막 책, 그리고 401년과 403년 사이에 쓰여진 창세기의 문자적 주석 12권을 썼는데, 그저 이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날짜를 적기 위해서였다. 이것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마지막 글들이다. 겉보기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같다.

어거스틴은 창조는 선하고 죄는 원래의 선함이 타락하거나 왜곡된 것이며, 일단 죄가 발생하면 신의 개입 없이는 그것을 없앨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안하게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죄가 없기를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세력에 대해 영적으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써만 인간은 이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부들이 이해했듯이, 죄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이유로 그곳에서 쫓겨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로부터 물려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가 그들 자신의 잘못이었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첫 인간의 죄 위에, 그리고 그 위에, 유혹을 통해 그들을 죄로 유혹한 악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게서 의인화되었는데, 그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사탄이 인류를 유혹하여 그의 반역을 따르도록 허락하셨는지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미스터리였지만, 그것들이 인간의 경험과 일치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악의 왕자인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의 왕국으로 다시 유혹하기 위해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결국 사탄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가 멸망할 때까지 악은 우리가 싸워야 할 현실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에 맞서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타고난 죄성은 우리가 사탄의 왕국에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며, 그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악마의 유혹에 내재된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계속해서 죄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명석한 작가가 아닌가? 죄악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적 행위와 대조적으로 정확히 무엇인가? 죄악을 유한성과 유한성과 동일시하는 이교도 그리스인의 경향을 따라 많은 교부들은 그것을 우리 인간의 체질에 내재된 약점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생각에 악은 우리가 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선함의 부족, 부재 또는 박탈이었다. 그들은 신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그 선함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죄,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죄악의 상태입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 또는 우리가 실제 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러한 분리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선함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떠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파괴에 얽매어 있으며 그것 때문에 파괴될 것입니다.

이 파괴가 완전한 소멸인지 영원한 형벌인지는 교부들에게는 덜 분명했지만, 이 문제를 논의한 소수는 영원한 형벌이 하나님의 본성과 더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따라서 가장 반항적인 피조물조차도 존재 속에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피조물 중 하나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혼을 존재 속에 보존하는 것은 또한 그들이 자기 파괴에 대한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들은 자기 파괴를 고통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창조물에 대해 친절하고 사랑하시지만, 그분께 불순종하여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에 대한 처벌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가 말한 대로 정확히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가 자유주의자들조차 보편주의를 가르치는 성공회 교회에서 영원한 처벌을 고수한 것에 대해 그에게 공을 돌리고,

브레이는 복음주의자들이 소멸주의나 영원한 처벌을 놓고 다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은 될 수 있지만, Southern Baptist Convention, Evangelical Free Church, 또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목사는 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영원한 의식적 형벌, 즉 지옥에 대한 역사적 교리를 고수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저는 브레이 박사보다 그 점에 더 강할 것입니다. 저는 브레이 박사를 매우 존경합니다. 그는 저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인용한 것처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고린도전서 2:14).

죄가 본질적으로 선의 부족이나 박탈이라는 생각은 초기 교회에서 일반적이었고 동방에서 지배적인 견해로 남았습니다. 동방 정교회 견해의 핵심 요소는 아담의 죄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고, 그의 모든 후손이 죄를 지은 것은 그들의 필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5:12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그들은 인용문에서 죄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은 죄를 통해 들어왔다고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 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이 번역의 정확성은 모호한 그리스어 구절의 의미에 달려 있는데, 이 구절은 동방 교회에서는 *for which reason*으로 번역되지만 서방의 대부분 사람들은 *because*로 번역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가능하며, 따라서 어느 의미가 더 바람직한지는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불멸이었고 죄가 세상에 필멸성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이 그의 죄의 결과로 죽었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것은 죄가 그가 본래의 불멸성을 잃게 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결국, 사탄은 불멸이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특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필멸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죄가 없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죄와 죽음의 관계는 동방 정교회보다 더 복잡한 듯하거나 적어도 대표 신학자들이 허용한 것보다 더 복잡한 듯합니다. 아담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가 타락했을 때 그 보호는 제거되었고, 그의 본성이 그 과정을 거치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방 교부들이 주장한 것처럼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반대는 아닙니다. 고대에 이 관점의 주요 도전 과제는, 여기서 우리는 원죄에 대한 견해에 도달하고 있는데, 히포의 어거스틴의 펜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418년경 로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영국 수도사 펠라기우스의 가르침 때문에 이 관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위에서 설명한 동방의 죄 교리와 매우 유사한 것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동방의 동료들처럼 펠라기우스는 유전된 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전된 죄가 전혀 없다고 부정함으로써 그들보다 더 나아간 듯합니다. 이 지점에서 혈떡거림을 삽입합니다.

그는 분명히 필멸의 유산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는 이것을 죄악에서 분리하여 선의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지점까지 끌어올린 듯합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주의가 나쁜 평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친구를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불친절하고 부정확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높이고 그 은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날카로운 논문을 썼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서방 교회에서 정당하게 비난받았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개혁자들조차도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주요 장애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가톨릭 반대자들을 펠라기우스파 라고 불렀습니다 . 이것은 1530년에 개신교 교리의 첫 번째 주요 성명으로 작성된 주요 루터교 상징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용문으로, 우리는 펠라기우스 파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 그들은 원래의 결함이 죄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의 영광을 없애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용문 닫기. 펠라기우스에 대한 투쟁은 서방 교회의 죄와 은혜에 대한 의문에 새로운 날을 더했고, 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재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특히, 그것은 그 이후의 서방 기독교 신학자들, 무엇보다도, 실례합니다만 ,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어거스틴의 후기 지지자로 여겼고, 어떤 의미에서는 죄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며 동방 교회가 가르친 것처럼 선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원죄,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칼빈주의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른 하위 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불멸이 아니라 부도덕성에 불쾌감을 느꼈고, 4세기 후반과 5세기 초반의 부도덕성에 불쾌감을 느꼈으며, 영국의 수도사 펠라기우스는 공언하는 기독교인에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건함을 장려하기 위해 그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창조되었고, 아담의 타락은 그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창조론자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부모로부터 영혼을 받습니다. 창조론에서, 신은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될 때 영혼을 창조합니다. 펠라기우스는 각 인간의 영혼이 타락이나

죄책감에 오염되지 않은 신의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주장한 창조론자였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나쁜 본보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약한 견해입니다. 아기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지만 나쁜 습관을 발전시키면 최악적인 생활 방식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아기들이 모두 나쁜 본보기를 따르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펠라기우스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의 예로, 특히 그들에 대한 구절이 몇 개밖에 없는 특정 성경 인물들을 인용했습니다. 에녹? 저는 노아를 인용하지 않겠지만, 그는 인용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옳? 현명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저 나쁜 예를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은혜를 보지 못했나요? 오, 물론,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정의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는 법, 예수의 모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였습니다.

것을 대신해 주는 하나님의 외적인 사랑과 능력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썄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법을 가진 사람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와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자유주의적 자유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신의 명령을 이행하고 그로써 신 앞에서 의로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담이 나쁜 본보기였지만, 이것은 원죄에 대한 견해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에게서 그의 나쁜 본보기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친구들을 펠라기우스 주의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 루터는 재치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아마도 그들을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라고 불렀어야 했고 반-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야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여기서 우리는 제임스 아르미니우스의 원죄 교리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신학적 후계자들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연합 감리교의 보수적인 감리교도 그룹인 Good News Movement 에서 태스크포스를 위임하여 현대 보수적 웨슬리안 신학에 대한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신앙 선언문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주날루스카에 있는 호수 이름을 따서 주날루스카 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5년에 이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유명한 감리교 신학자인 폴 A. 미키는 주날루스카 선언에 대한 해설서를 썼는데, 웨슬리안 신학의 본질(Essentials of Wesleyan Theology, Zondervan, 1980)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날루스카 선언과 미키의 해설을 기반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 입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보수적인 아르미니우스주의 입장은 인류의 타락을 선언합니다. " 아담의 타락 이래로 죄의 타락은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어 사회적 관계, 사회 시스템, 모든 창조물로 확대되었습니다. "

펠라기우스파가 아니잖아요 , 맞죠? 아담은 그저 나쁜 예가 아니에요. 부패.

그들은 죄책감이 아니라 부패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아르미니우스 형제 자매들은 이 부패, 보수적인 아르미니우스 형제 자매들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부패는 죄인의 입장, 즉 신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부패는 너무 만연해서 우리는 신의 구원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 잠깐만요.

감리교도들은 무능함을 가르친다고요? 안전벨트를 꼭 매세요.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확신시키는 사역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합니다. 인용문, 하나님의 예비적 은혜나 준비적 은혜를 제외하고는.

인용문 닫기. 미키는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전통적으로 아르미니우스파는 하나님의 이 준비 은혜가 보편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동등하게 제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적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보편적인 예방적 은혜에 대한 이 개념은 실제로 아르미니우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부른 Wesley는 사실 훌륭한 획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인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편적 선행은 예외인데, 이는 미리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 아마도 태어날 때 아기에게 와서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한 영역에서 원죄의 영향을 완화합니다 .

그들은 사산된 죄인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일 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신앙 신학입니다.

질문은, 이것이 성경이 은혜에 대해 말할 때 가르치는 것일까요? 큰 존경을 담아, 웨슬리안 전통에서 예방적 은혜에 대한 책을 쓴 저의 전 학생 브라이언을 포함하여. 브라이언 셸턴. 감사합니다, 주님.

브라이언 셸턴은 신의 달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는 개혁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제 학생이었습니다.

그에게 공을 돌리세요. 그는 예정론에 대한 독립 연구를 저와 함께 했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실, 나는 그에게 예방적 은혜에 대한 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헌정 에서 그것을 두 사람에게 바쳤고, 저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를 돌보고, 가르치고, 저와 의견이 달랐던 저의 전임 교수인 아이라 피터슨에게.

그리고 이 책을 쓰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그런 식으로요. 그는 다정한 형이에요.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은 쓰여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글의 명확성과 구성 외에도 몇 가지 진정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신학에서 강력합니다. 제가 약점을 발견한 곳은 성경입니다. 보편적인 예방적 은혜라는 개념의 주해적 기초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칼빈주의 친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가 예방적 은혜라는 용어를 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 오거스틴이 발명했거나, 아니면 그가 어디서 그것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의 은혜는 분명히 구원보다 먼저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상황으로, 우리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되돌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것은 효과적이고 특별합니다. 신은 그것을 오직 그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데, 그는 성령으로 그분께로 그들을 이끎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무능에 대한 기술적 가르침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최고입니다. 최악의 사람은 죄의 영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못합니다.

하위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보편적인 예방적 은혜를 고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클라크 피녹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쓴 Chosen But이라는 책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Norm Geisler. 이들은 신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Norm Geisler와 Clark Pinnoch은 이 보편적인 예방적 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Geisler는 Chosen But Free라는 책에서 James White의 대응책인 The Potter's Freedom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불구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영적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오, 세상에. 저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의 변증 사역을 존중하지만, 세상에, 저는 그 사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르미니우스파는 이 예방적 은혜를 고수해 왔습니다.

앞서 오는 은혜, 은혜를 준비하는 은혜. 원죄의 효과를 한 영역, 즉 인간의 의지에서 무효화하는 은혜. 묶여 있었지만,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웨슬리는 신학 논문을 한 권 썼습니다. 그는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학 체계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편적 예방적 은혜는 천재적인 움직임이다. 그것은 복음주의 아르미니우스 구원론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이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첫눈에 보면 유전적 부패에 대한 아르미니우스의 입장은 제가 아직 정의하지 않은 칼빈주의의 즉각적

귀속 관점과 비슷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아르미니우스와 칼빈주의의 원죄 교리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르미니우스파가 아담의 죄를 통해 우리에게 누적된 모든 책임과 정죄가 선행적 은혜를 통해 제거되었다고 주장 한다고 말합니다 . 그는 그들의 유명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오토 와일리를 인용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 정죄받지 않습니다. 비록 그 타락이 죄의 본질이기는 하지만요. 그 책임은 그리스도의 무상 은사로 제거되었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에릭슨은 와일리의 생각을 요약합니다.

인용문: 이 예방적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고, 사실상 아담으로부터 받은 타락을 무력화합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하고, 특히 그것이 의지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Wiley's Christian Theology* , 2권, 121~128쪽에서 발췌.

다음 강의에서는 칼빈주의적 관점,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칼빈주의적 관점에 대해 다룰 것이고, 그 후에 하나씩 평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성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원죄,

표절 , 아르미니우스 주의입니다 .